

건축사의 옥외집회와 메이저 매스컴의 건축관

Outdoor Assembly by Architects and Architectural View from Major Mass Media

2월 초하루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장장 3시간에 걸쳐 진행된 '건축문화수호를 위한 건축사궐기대회'는 영하 9도의 과천 벌을 녹이고 남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제주도는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 서울에 이르기까지 새벽잠을 설쳐가며, 세 살 박이 어린 아들까지 들쳐 안고 온 어머니 건축사, 80세 노구를 이끌고 온 원로 건축사까지 예상인원 보다 많은 건축사들이 동참하였다.

우리는 회장의 개회사와 아카시아이사회의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낭독할 때 환호하였고,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을 철회할 것을 주장할 때엔 절규하였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문가의 존엄성과 건축사의 자존심과 생존권, 그리고 이 나라의 건축문화화를 위해 외치고 또 외쳤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갔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앞으로 뭉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응어리진 가슴이 조금은 풀린 듯하여, 내일부터 감기가 온다 해도 기쁘게 맞을 각오로 콧물을 흘리며 차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분은 단지 몇 시간뿐, 공중과 텔레비전의 저녁 뉴스는 물론 아침에 받아본 메이저신문들 어느 곳에도 우리의 시위기사는 없었다. 허탈감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0년 전부터 시작되어 끈질기게 이어진 건설사 설계겸업 문제는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작년 8월 말, 건교부에 의해 로드맵이 완성되고, 12월 말 용역발주를 하게 되었다. 협회는 동년 10월 말, 정보를 입수하고 이사회와 시도회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던 중, 그동안 세계의 예 등을 들어 수 없이 그 부당성을 지적해도 이리 막무가내로 대형건설사만 편드는 정책을 밀고 나가니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자는데 모두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이사와 시도회장이 전원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위의 시기에 대하여 전권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연말에 회의를 개최한바 시위의 시기에 대하여, 2월 1일안과 4월안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2월안은 첫째, 현 집행부가 먼저 시작을 해야 차기 집행부가 짐을 덜 수 있다는 것과 둘째, 2~3월에 본회 및 시도회의 회장이 모두 새로 취임하는데, 새 집행부가 업무파악도 잘 안된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러다보면 아예 옥외집회는 못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그 때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우선 하자는 것이었다.

4월안은 첫째, 건교부장관 이하 주무 국장들이 금방 바뀌었으니 밀월기간을 두자, 그래야 나중에 좀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지금 시위한다고 용역보고서가 철회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실익이 전혀 없다. 차라리 중간보고서가 5월쯤 나온다고 보면 그때가서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셋째, 우군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의 주장이 정당해도 제3자가 보기에는 업역 다툼, 밥그릇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이 경우 매스컴의 관심을 끌 수 없다. 그렇다면 건설사 설계겸업 시 예상되는 피해를 널리 알려, 소비자 보호단체, 주부클럽 연합회 등을 우군으로 만들고, 중소건설사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바 이들과도 연합하며, 4월에는 학생들도 수업 중이니 건축과생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렇게 건축사 아닌 여러 계층의 국민들이 함께 일어나야 매스컴도 반응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그 경비와 시간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유대

예상한 일이지는 하지만, 책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한 것을 제대로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홍보담당이사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하며, 추위에 떨면서 시위에 참가한 모든 회원님께 사과한다.
 사과를 하면서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 다시 이같이 처참한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 기록을 남기려하는 것이다.
 감성보다 이성, 형식보다 실리가 중요한 때다.

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다.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 시도회장들이 주축이 되어 주장한 2월안이, 이사들이 주축이 되어 주장한 4월안을 15대 7로 이겨, 가결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는 가동되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며 각자 맡은바 준비했다. 홍보의 경우, 다행히 본 행사 기획사에서 공중파 텔레비전 2사와 메이저신문 두 곳 정도는 가능하다하여 한시를 놓고, 나머지를 확보하기로 하는 한편, 각종 문안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시위 3일을 앞둔 월요일 아침, 기획사측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해왔다. 보도 자료를 보고 모두 불가하다하니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이었다. 홍보팀은 친구, 선후배, 부인까지 동원하여 힘써 보았으나 심지어 광고를 준 신문사마저도 외면하였다. 참패! 실로 처참한 완패였다.

매스컴들은 시청자와 독자의 눈과 귀를 먹고 산다. 그들의 관심을 끄는 기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가 회사의 매출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철저한 상업주의와 자본주의가 그들에게도 상존한다. 그들에게는 건축문화도, 10만명의 생존권도 그저 업역다툼의 한 모습으로만 보였던 것이다. 건축에 무지한 소치이나, 그렇다고 그들을 교육할 수도, 탓할 수단도 없는 현실이다.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다. 그래서 2월 집회를 당초부터 반대해온 것이다. 그러나 본인 뜻과 다르더라도 일단 협회차원에서 결정되었기에 열심히 했고, 텔레비전은 몰라도 신문은 한두 단으로나마 보도해줄 것을 기대했었다. 친구인 메이저 신문사의 편집차장을 만나고 온 모이사는,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탈락되었다는 전언에 허탈해했고, 필자 또한 두 곳에 전화 인터뷰를 했기에, 그곳만은 믿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문 방송사를 향하여 항의의 글을 올리고, 전화를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고, 건축사와 설계를 이해시키는 일이다. 그리해도 막대한 금액을 광고비로 지출하는 대형건설사의 입김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 포석으로 채략할 전략이다.

책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한 것을 제대로 이루어야 한다. 좋은 환경에서만 할 수 있다면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홍보담당이사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하며, 추위에 떨면서 시위에 참가한 모든 회원님께 사과한다. 사과를 하면서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새 집행부는 금년 한해를, 어쩌면 임기 내내 건설사의 설계검업과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한다. 이제 한 달도 채 안되어, 누군가가 필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봉사할 것이다. 필자는 그들에게 또 다시 이같이 처참한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 기록을 남기려하는 것이다. 실수는 한번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매스컴과 연관 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앞으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실 것이다. 함께 힘을 보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성보다 이성, 형식보다 실리가 중요한 때다. ■